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6

지안 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 / 열반경(10월 21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선남자여, 여래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며,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금강과 같은 몸이며, 잡식하지 않는 몸이니, 곧 법신이니라."
또 <장수품>에서는 부처님이 장수의 업을 얻었다고 설해져 있는데 이 장수의 업이 바로 불신 상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열반경> 특유의 '불신관(佛身觀)'에 대한 이야기들로서 반야부경전이나 <유마경> 등에서 설해진 부처의 본체가 법신이지 생신(生身)이 아니라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성을 자각해 법신을 증득하면 부처이므로 이에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승의 이승(二乘)인 성문(聲聞) 연각(緣覺)들을 평가절하해 대승으로 회심하지 못하면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열반경>은 이러한 불가능성을 철폐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정해졌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천제성불론까지 주장합니다.

'천제'란 잇찬티카(icchanta)의 음사한 말로 일천제를 줄여 천제라 하는데 선

날을 수 있고, 생사의 유전이 끊어지지 않아 비록 사중죄(四重罪)와 오역죄(五逆罪)를 범한 자들은 보리심을 내게 할 수 있어도 선근이 끊어진 천제들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22품인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에서는 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선언한 이상 천제도 불성 밖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가 만약 언젠가 불성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에게도 성불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로 말하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참회해 갱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열반경>의 주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불신상주설'과 '일체중생성유불성론', 그리고 '상(常) 락(樂) 아(我) 정(淨) 열반의 네 가지 덕'과 '천제성불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의의 모두 불성에 바탕을 두고 설한 것이며, 이 불성이 현현(顯現)된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열반경>의 대의를 '의진상 현일성(依眞常 顯一性)'이라 말해 왔습니다. <열반경>은 불성의 현현을 위해서 엄격히 계를 지켜야 할 것과 팔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발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계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훈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는 <열반경>을 불성개현에 있어 율행의 성취가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 의한 불도 완성의 취지를 그대로 설해 놓은 하나의 표본 법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반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구(論究)입니다. 몸을 거둬들여 갈수록 열반에 대한 설명이 진지해지며 차원이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성을 단순한 사선식 설명인 법성(法性)이라고 표현하다가 <사자후보살품>에서는 불성이란 공(空)과 불공(不空)을 보는 제의의공(佛一義空)인 중도(中道)라고 설명하며, 또 12인연을 관조하는 지혜를 불성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나중에는 12인연 그 자체를 불성이라 하기에 이르며, 다시 불성을 인과로 나누어 설명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부처가 되었을 때의 불성은 과(果)의 불성이고 중생으로 있을 때의 불성은 인(因)의 불성이라 하여 불성을 인위의 불성 과위의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열반경 불성론의 대의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복 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등 조계종 승가대학원 학인 6명도 이번 법회에 동참해 승가대학원장인 지안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는 뜻을 이어 받아 한 말씀입니다.

<열반경>의 또 하나 중요한 대의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선언한 실유불성(悉有佛性)사상입니다.

불성이란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의 본질입니다. 일체 중생과 만유가 모두 불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성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불성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깨달아 부처가 될 때 어떤 불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불성이 현현(顯現)한 것입니다. 비록 범부는 불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번뇌에 덮여 있는 상태인 하나 돌 속에 들어 있는 금이 제련돼 순금이 되듯이 번뇌에 덮여 있는 불성이 부처의 근본이며,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중생 누구누가

근이 끊어진 사람, 혹은 믿음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단선근(斷善根), 신불구족(信不具足)이라고 번역합니다.

<열반경>에는 이 천제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정진해 불성을 개발하여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의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근이 없고 악근(惡根)이 깊어 불성개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처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실제로 부처님이 입멸하려 할 때 스승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구들이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 제17품인 <일체대중 소문품>에서는 일천제의 불성은 한량없는 죄업에 얽매어 있어 깨달음의 종지를

질의

범부 죽음은 고통, 부처님 죽음은 '깨달음'



원효 스님(봉계사 승가대 교수)

[질문1] 부처님의 죽음은 범부들처럼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열반에 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열반과 범부들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안 스님] 열반이란 죽음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지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범부 즉 중생의 죽음은 '고(苦)'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죽음은 '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범부들의 죽음은 자신이 평생 동안 지은 업(業)에 묶여서 가나가 괴로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이라 부르는 것은 범부들의 죽음처럼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 자체로 보기 때문입

니다. [질문2] 요즘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웰빙'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웰빙' 즉 잘 산다는 것은 곧 잘 죽는다는 웰다잉과도 연결이 돼 있어 '웰다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불자들이 '웰다잉'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안 스님] 요즘 '잘 죽기 위한 모

임'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 등과 같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곧 '회향'의 의미입니다. 제가 통도사에 오래 살았는데 해마다 화엄산립법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80세가 넘는 노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기도하면서 "죽을 때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열주일 굴리면서 기도하다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보살님은 정말 앉아서 열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는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수행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을 때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를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하나입니다. 신심을 다해서 마음공부 즉 불도를 열심히 닦아 가십시오. 반드시 웰다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 '중요' 통해 정법호지의 계율 강조



이재수(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질문1] <열반경>에서 '일천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경전 안에서 '일천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일천제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안 스님] 수행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중생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책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람을 나무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진행되는 과정 중에 상벌이 분명해야 결과가 좋은 법입니다. '천제불성불론'이 나온 것도 천제를 배제하면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장애를 막고 잘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일종의 방편이었습니다.

정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행 못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거나 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천제불성론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

하고 계신지요. [지안 스님] 원효 스님이 <열반경중요>에서 말하는 방등이란 대승의 천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반경>을 방등경전에 비견할 창고라고 한 것은 대승 사상을 포괄적으로 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이 편찬될 당시 불교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교단 안팎으로 불교의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경>은 불교의 근본 대의를 다른 종교들에게 위촉되지 않게 바로 세워야겠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반경>은 대승의 어떤 경전보다도 계율을 강조하고 있지요. 원효 스님의 말씀도 <열반경>이 어느 대승경전보다도 정법호지의 계율을 강조했으며, 불성론으로써 불교의 본령을 삼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대청마루 공장직판 할인전
자연의 향기와 승결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소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쓰면 쓸수록 풍격을 더해가는 옥송좌탁입니다.
덕불 침대(mm) 2100x1700x320
중국산과 무늬목 좌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배송하여 드립니다.
문의처 080-300-9928
입금계좌:농협 484-12-084526(예금주:이커자)